

‘목포 30대 자매 100회 헌혈’ 유공장 수상

김화선·김승이 자매, 헌혈증 200여 장 기증



전남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자매가 나란히 헌혈 100회를 기록해 유공장(명예장)을 수상했다. 헌혈증은 모두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김화선(37)·김승이(34) 자매에게 헌혈유공장(명예장)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유공장은 100회 헌혈자에게 전달하는 상으로 올해 56명에게 수여됐다.

김 자매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방문한 헌혈버스를 통해 첫 헌혈에 동참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했으며 지난 14일 헌혈의집 유달센터에서 헌혈을 하며 100회를

채웠다. 김 자매는 헌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달센터에 간식을 보내기도 했으며 그동안 모은 200여 장의 헌혈증도 모두 기증했다.

언니 김화선씨는 “동생과 함께 헌혈에 동참해 동기부여가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이씨는 “고등학교 시절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 남을 돕는 작은 실천의 의미로 헌혈을 했다”며 “많은 사람이 생명나눔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포토뉴스



평동 지사협, 장수 어르신 100세 생신 축하 평동구 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30일 올해 100세 생신을 맞은 김매실 어르신에게 전자렌지와 굴비세트 등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매실 어르신은 1923년 5월30일생으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현대사의 희노애락을 모두 겪었다. 100세인 지금도 손수 식사를 챙길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종기 기자

시교육청, 제51회 전국소년체전 15년 만에 최고 성적

광주양궁, 사상 첫 4관왕...수피아이중, 21년만에 농구 금



제51회 전국소년체전 광주수피아이중.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도전과 꿈의 무대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2007년 경북소년체전 이후 15년 만에 금메달 22개를 수확하는 최고의 성적이다.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8~31일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664

명의 대표 선수들이 33종목에 참가해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단체 종목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검도 초등부 광주선발팀은 홈 이점을 가진 경복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 달성에 성공했고, 광주수피아이중은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며 21년 만에 농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 수산계 고교생 맞춤형 진로탐색

여수·완도·신안 3개 학교서 역량 있는 수산인재 양성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계의 경쟁력 강화와 여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수산계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실무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학교별로 이틀간 진

/박종배 기자

개인종목에서도 선전이 잇따랐다. 역도 유망주 광주체육중 신한승은 남중 +102kg(인상, 용상, 합체)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광주체육중 윤준호도 1m86을 넘어 광주 높이뛰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안겼다. 사격 공기권총 광주체육중 박지민은 개인 우승, 최대빈, 조은준, 김지윤과 함께 출전한 공기권총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을 차지했다.

우리중 이현서 학생은 양궁 50m, 60m, 개인전, 단체전에서 연이어 금빛 과녁을 쏘며 광주양궁 첫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취약종목인 조정, 자전거, 육상 종목에서의 선전도 빛났다. 자전거 1km 개인 추발에서 광주체육중 박소린 학생이 금메달, 김지선 학생은 조정 싱글스킬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육상에서도 남중 세단뛰기 은메달 1개, 남중 400m에서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며 향후 육상 종목에 대한 희망찬 전망을 밝혔다.

/김도기 기자

순천교육청, 초등학교 예절교육 프로그램 ‘눈길’



순천교육지원청은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초등학교 61개 학급 1478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예절교육은 순천인 성장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순천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절교육은 지난 4월 11일부터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복 입고 전통 인사법 익히기, 다식 만들기, 다도 예절 익히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천왕조초 학생은 “예쁜 한복을 입고 옛날 어른들이 하였던 ‘질’을 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뿌듯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의젓하게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하고 흐뭇한 마음이 든다”면서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울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해수청, 바다의 날 맞아 해양정화활동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주간을 맞이해 5월 31일 14시부터 목포항 유류부두 인근 해안에서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해양정화활동에는 목포해수청,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식품물관리센터, 해양환경공단, 해군제9함대, 영암군청 등 13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2톤을 수거·처리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심폐소생술 체험 프로그램 추가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광양항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건강관리실에 심폐소생술(CPR) 및 화재 진압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주산학융합원장 이천환 원장 취임



광주산학융합원 이천환 선임 원장이 31일 취임했다. 선임 이 원장은 1994년부터 26년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몸담아온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기업 네트워크, 인적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산학융합원은 빛그린산학융합지구에 1만6500㎡ 규모로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축 중이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다. 이곳에 전남대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를 유치하고 기업연구관에는 자동차 관련된 50개 업체를 입주시켜 인력 양성은 물론 기업연구소 육성 지원, 미래모빌리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자

순천시-소방, 화재안전 업무협약 체결

도시재생 구역 화재안전 컨설팅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순천시와 순천소방서는 ‘역세권 도시재생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5월 3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역세권 도시재생 화재안전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양 기관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대내외 홍보 등 화재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숙박업소를 대

상으로 ‘안심안전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진압 출입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화재안전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천시와 순천소방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역세권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지 전체에 화재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빛가람초, 음악과 함께 학교 가는 길

1학기 등굣길 오케스트라 연주회 운영 ‘눈길’



빛가람초등학교는 5월 31일 오전 8시 10분부터 45분까지 1학기 등굣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운영했다.

2016년에 창단한 빛가람 DREAM 오케스트라는 제 64회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으며, 나주시민오케스트라 창단공연·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개막식·전남교원합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초등오케스트라이다. 40명의 학생단원과 12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주당 7시간씩 레슨 시간을 갖고 있으며 연주회 진행 순서,

장소, 시간 등을 사전에 계획했고 28일 리허설도 실시하는 등 당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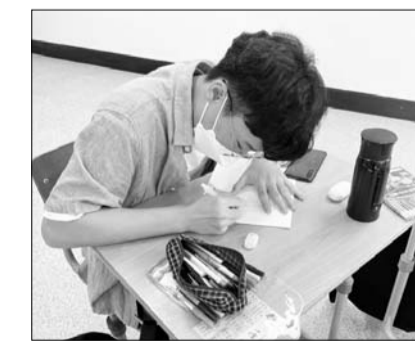
연주회는 빛가람초 교문에서 실시됐다. 연주곡은 미솔라, 디즈니 메들리, 빛가람초 교가, 라테츠키 행진곡이었다.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오케스트라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만족한다. 오늘을 계기로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흐뭇한 마음을 내비쳤다.

/주기호 기자

푸른꿈창작학교 ‘흡연예방 캠페인’

세계금연의 날 맞아 교문 앞 피켓·문예 행사 실시



광주푸른꿈창작학교가 지난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학생 주도적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5월 31일 푸른꿈창작학교에 따르면 교직원들과 학생회 임원 및 자치회 학생들이 참여해 교문 앞에서 피켓과 흡연 예방 문예 행사 시간을 가졌다.

금연 문예 행사로는 각 교과 시간에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흡연 예방·금연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제에 맞게 작

품을 완성해 이날 행사의 꽃이 되기도 했다. 그 외 포스터, 사형시 짓기, 슬로건, 웹툰, 금연 서약서 만들기 등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동했다.

전체 교직원들은 심사위원이 되어 시상작품을 선정해 부상을 전달하고 선정된 작품은 중앙현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계양 교장은 “흡연 예방 체험 활동 참여로 학생 흡연율의 감소에 따른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 환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금연의 이로운 의미를 알리고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금연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흡연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진행된 다양한 행사들은 이후로도 비흡연자 학생들의 참여로 친구의 금연 의지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

/김도기 기자